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 ‘뒤에 오시는 분’(마태 3,11)을 기다리며

“회개하여라.”(마태 3,2) 세례자 요한은 더 이상 간결할 수 없고 더 이상 클 수 없는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 마디로 세상에 외칩니다. 이 외침은 예언자에서 예언자로 마치 햇불 하나 전달되듯 전해져 온, 사고방식과 생활 자체를 온전히 바꾸어 구원과 생명을 구하라는 애타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 어떤 예언자도 덧붙이지 않았던, 회개해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 분노, 두려움, 감감함 등 이전 예언자들의 위협과는 매우 다르게, 밝고 즐거운 희망으로 가득한 ‘하느님의 종말론적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제 막 세상에 들어오는 위대한 사건, ‘기쁜 소식’,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선포자입니다.

그럼에도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 엄격한 극기의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가까이 오는 종말론적 구원을 얻겠다는 각오로 세례를 받으라고, 대단히 어두운 분위기로 사람들을 강하게 일깨웠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의 태도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8)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죄를 멀리하고 하느님을 선택하라는, 그리고 단지 ‘사고방식의 전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새로운 생활을 분명하

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여 받는 하느님의 특전도 개인의 ‘회개’ 없이는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마태 3,10)고 하면서, 찰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화급하게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뒤에 오시는 분”(마태 3,11)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겉만을 깨끗하게 해주는 물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는 하느님의 성령을 주시는 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종국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마태 3,12)이라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이자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인 오늘, 우리는 구약의 어두움과 신약의 밝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아직 어두움 속에 있음을 자각한 우리는 ‘하늘나라’를 다시금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여시는 분, 메시아, 즉 마지막 때의 주님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인이 되어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할 줄 아는 참 사랑’, ‘분별 있는 사랑’을 살도록, 새로운 백성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화동성당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34길 3

중화동성당은 2008년 2월 묵동성당을 모본당으로 8개 구역 2,173명의 신자로 분가해 설립되었습니다. 초대 주임이 부임할 당시 당장 미사를 드릴 곳이 없어 약 14개월 동안 묵동성당에서 주일 미사는 낮 12시에, 평일에는 오전 10시에 중화동성당 미사를 드렸습니다. 2008년 9월 성전 기공식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첫 사목협의회를 발족해 사목 활동과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여 2009년 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3층은 대성전, 4층에는 유아방과 성가대석, 2층에는 주일학교 교실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2009년 11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